특집

e-Learning의 활성화와 교수학습센터의 역할

심미자*

* 연세대학교 교육개발센터 교육자료개발부장.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센터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1회 국제 심포지엄은 외국 대학들의 교육 개혁 동향과 교수학습센터 사례를 비롯해 국내 대학들의 교수학습센터 현황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나라 대학에 교수학습센터가 도입된 지 불과 4~5년에 지나지 않지만, 그동안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전개해왔다. 현재 전국 대학 교수학습센터의 협의 기구인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의 회원 대학이 85개에 이르고 있고, 또 매년 교수학습센터가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물론 회원 대학들 중에는 필요성에 의해 센터를 설립하였으나 여건상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다. 그리고 이미 몇 년 동안 센터를 운영해온 대학들 중에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국제 심포지엄의 주제는 도약이 절실히 요구되는 국내 대학 교수학습센터의 현 상황에 매우 시기적절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

e-Learning과 관련해서는 난양기술대학교(Nanyang Technology University)의 사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e-Learning 관련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평생학습 사회의 키워드인 e-Learning은 교육개혁의 핵심 주제이다. 새로운 교육 체제로서의 e-Learning은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과 교육 과정의 변화를 가져왔다. 2001년부터 인터넷 기반의

평생교육 기관으로 원격 대학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e-Learning 체제가 도입되었으며, 대부분의 일반 대학들도 e-Learning을 기존의 교육 체제와 병행하면서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e-Learning에 대한 관심과 급속한 발전에 비해 대학의 e-Learning 접근 방식 및 운영의 노하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외국 대학들의 경우, e-Learning을 통한 학위 과정과 대학원 과정은 물론 자격 인증 프로그램, 지역 연합 원격 교육기관 운영, 평생교육 과정, 국제 전문가 양성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고등교육기관의 e-Learning 활성화 방안으로 대학 교수학습센터의 지원 강화가 대두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e-Learning 관련 발표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e-Leaning에 대한 총체적 접근: 난양기술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A Holistic Approach to e-Learning: NTU Case Study)를 발표한 다니엘 탄(Daniel Tan) 교수는 난양기술대학에서의 e-Learning 발전 과정과 성공 전략을 소개하였다. 난양기술대학의 e-Learning은 1998년에 파일럿 e-Learning 운영을 시작으로 1999년에 e-Learning 팀을 구성하여 22개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국내외의 교수학습센터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의 온라인 코스를 운영, 2000년에 해외 벤치마킹과 연구 및 평가를 통한 질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2002년을 기점으로 난양기술대학에서의 e-Learning은 온라인 코스와 사용자가 단계적으로 증가하면서 질적 • 양적 차원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난양기술대학 e-Learning 시스템의 특징 중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항은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설계와 사용자 친화적 툴(tool)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또한 e-Learning 스텝들을 위해서는 edUtorium이란 시스템을 통해 오리엔테이션과 세미나, 정보 공유, 워크숍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텝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신임 스텝을 위한 세미나 실시로 언제든지 코스 진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습자를 위해서는 e-Learning 학습 방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온라인과 오프라인 도움 데스크 운영, 온라인 수업 자료 및 학습자를 위한 연습 섹션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e-Learning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e-Learning 운영을 위해 e-Learning 조정위원회와 IT 전문가로 구성된 e-Learning 지원팀이 활동하고 있다 이런 조직을 통해 대학 e-Learning의 방향을 설정하고 코스 개발 및 컨설팅, 수업 설계 등에 대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니엘 탄 교수는 난양기술대학의 e-Learning 성장을 효율적인 학습(Efficient Learning), 인간 중심 학습(Humanizing Learning), 효과적인 학습(Effective Learning) 등의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하였다 난양기술대학의 e-Learning 시스템 구성은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에서도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것이지만, 난양기술대학은 단계별로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초기의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난양기술대학은 1986년 국내의 교수학습센터와 유사한 기관인 ETU(Educational Technology Unit)를 설립하여 수업 관련 활동을 지원해오다가 1990년대 초, 멀티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등장과 함께 그 역할이 확대되면서 CED (Center for Educational Development)로 개편되었으며, 현재는 웹 기반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비롯한 교수 • 학습 지원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e-Learning을 지원하는 기관을 살펴보면, 대학의 특성에 따라 교수학습센터와 별도로 사이버교육지원센터나 디지털교육지원팀을 운영하는 대학도 있고, 교수학습센터 업무의 한 분야로 e-Learning을 지원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다. e-Learning이 대학 교육의 한 유형으로 도입되면서 거의 모든 대학들이 e-Learning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e-Learning 전문 인력 및 대학 구성원의 e-Learning에 대한 마인드 부족, 전략적 접근의 부재로 인해 성공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e-Learning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으로 인해 e-Learning을 계륵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국내 대학의 e-Learning 현실에서, 사용자 중심의 설계와 운영, 스텝들에 대한 전문성 개발과 교육, 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난양기술대학의 e-Learning 운영 노하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성공적인 e-Learning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단계별 관리 체계와 시스템 구성, 관련자들의 관심과 열정이 필요하며 즉시적인 효율성을 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e-Learning을 어떻게 진화시켜갈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R&D, 수업 설계와 콘텐츠 제작, 효과적인 수업 운영과 같은 분야에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교수학습센터의 역할과 과제: 교수학습센터 e-Learning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를 발표한 배성근 과장(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보화기획과)은 교육인적자원부의 e-Learning 정책 비전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서 대학과 교수학습센터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의 e-Learning 정책 비전과 기본 방향은 e-평생학습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e-Learning을 통한 공교육 보완·혁신, 직업능력 개발, e-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핵심 인력 양성, e-공동체 구축을 통한 사회 통합의 추진이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2007년까지 권역 내 1개 대학에 e-Learning 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에 경상대학교·제주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에 산학연 클러스터로서 e-Learning 지원센터가 구축되었으며, 얼마 전 2005년도 권역별 센터로 강원대학교·전남대학교·영남대학교가 선정되었다. 권역별 e-Learning 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교육 과정 개발과 산업 인력 수급의 양적·질적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e-Learning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의 교수학습센터는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된 인재 양성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e-Learning을 통한 맞춤형 교육 과정 개발, 대학간 e-Learning 공동 학점제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것이다.

발표자는 이러한 국가적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지역과 세계 속으로 융화하는 'change agency'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교수학습센터는 국가 경쟁력과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서 지식과 사람을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정부 차원의 혁신 클러스터 정책 추진으로 대학이 지역 혁신의 구심체로 기대되면서 교수학습센터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all-line Learning'을 지원하는 센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제 교수학습센터는 대학 내의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현재의 기능만으로는 정보화 사회의 지식 혁명을 이끌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스탠퍼드대학의 SCRP(Stanford Center for Professional Development)는 재학생과 졸업생, 기업체 엔지니어, 공학 계열의 학습 희망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MIT의 CASE (Center for Advanced Educational Services)는 대학 내의 원격 교육, 교육 미디어 제작,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MIT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 대학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교수학습센터의 역할은 대학 내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국가적인 교육 정책의 비전을 공유하고 시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e-Learning이 국가 교육정책의 최대 화두임을 반영하듯, e-Learning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관심과 질문, 토의에도 열기가 대단했다. e-Learning을 왜 해야만 하는가? e-Learning이 면대면 수업에 비해 과연

효과가 있는가? 기존의 수업 방식을 대체할 만한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 전통적인 수업 방법과 어떻게 조화시켜 나아갈 것인가? 이론과 실습·실험을 병행한 수업에 과연 e-Learning을 적용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교과목에 e-Learning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것이며, 교수자와 학습자의 실질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다니엘 탄 교수는 전통적인 수업과 e-Learning 효과를 실질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없으나, e-Learning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난양기술대학에 e-Learning 도입을 시도하였다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겼다. 어떤 교육 방법이든 만병통치약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처음부터 성공과 효과를 보장해주는 것도 없다.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 최적의 조건을 형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가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보편적 고등교육 시대의 질적 수월성을 위해 정부와 대학, 그리고 산업체의 협력 시스템은 불가피하다. 이제 교수학습센터는 대학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역과 세계를 연계하는 허브로서의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며, 대학 구성원들은 교수학습센터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도약기에 있는 국내 교수학습센터의 발전적 비전과 미션 수행을 위해 이번 국제 심포지엄이 의미 있는 성찰의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해본다. 끝으로 교수학습센터의 발전을 위해 좋은 행사를 마련해준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